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7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6 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새 42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9 번 시편(Psalm) 13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야고보서 (James) 3:1-12	이기울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축복 있으리라”	찬양대
설 교 Sermon	“ 신앙을 삶으로 (6) – 온전한 사람은 ” (Living out Your Faith – A Perfect Human)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24 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새 38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좇았고,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교만하고 죄악된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죄악된 속성에서 돌이키며,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았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좇으며 살아가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한글개역 **약 3:2**)

“We all stumble in many ways. If anyone is never at fault in what he says, he is a perfect man, able to keep his whole body in check.” (NIV James 3: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18 (주일)	7/19 (월)	7/20 (화)	7/21 (수)	7/22 (목)	7/23 (금)	7/24 (토)
	삿1	삿2	삿3	삿4	삿5	삿6	삿7
본문	행5	행6	행7	행8	행9	행10	행11
	렘14	렘15	렘16	렘17	렘18	렘19	렘20
	마28	막1	막2	막3	막4	막5	막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7/21수 오후7:30)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살전 5:16-18)
토요 새벽기도회 (7/24토오전6:30)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11-20)

지난 주일(7/11) 말씀

“**신앙을 삶으로 (5) – 삶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약 2:14-26)

야고보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약2:14-26)에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결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천적이며, (그래서) 믿음에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나 화물차와 같고, 또한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천이며, (또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즉,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약2:14), 2)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믿음도 있으며(약2:17), (또한) 3) 헛된 믿음도 존재한다(약2:20)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 또는 헛된 믿음이 아닌,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말로만 끝날 수 없고, 2)둘째, 진실한 믿음은 (결코)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3)셋째, 행함으로(삶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2:22)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의 삶으로(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삶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